



[산업] 현대·기아차 SUV 美 소비자 사로잡다 06



Economy

코스피	2186.45 (+35.14)	코스닥	666.09 (+25.15)
금리 (미국 3년)	1.42 (+0.05)	환율 (원/달러)	1159.10 (-11.70) (9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포항 포스코 스마트공장 제2고로에서 근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합뉴스

### 文대통령, 경북규제자유특구 투자협약식

# “철강에서 배터리로 포항, 미래경제특구”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포항 내 경북 규제자유특구에서 진행된 GS건설·경상북도·포항시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 투자협약에 참석해 “(이번 투자로) 앞으로 3년간 1000억 원의 투자와 함께, 3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번 투자)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 중 가장 규모가 큰 투자이며 대기업으로서도 최초다. 포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철강이 ‘산업의 쌀’이라면, 배터리는 ‘미래산업의 쌀’이라며 “핸드폰·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오는 2025년이면 (배터리 시장은) 메모리반도체보다 큰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라며 이렇게 격려했다.

이와 관련 GS건설은 전기차 시장 확대에 성장이 유망한 ‘배터리’를 미래먹거리사업으로 해 포항시에 오는 2022년까지 총 1000억원을 투자한다. GS건설의 투자로 연간 최대 1000대

전기차를 처리(수집-보관-해체-재활용 순)할 수 있는 설비가 구축, 포항은 이차전지 산업의 전진기지로 활약할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 현장을 처음 방문했다. 문 대통령이 규제자유특구 현장을 직접 찾은 이유는 이번 GS건설·경상북도·포항시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 투자협약이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로 성사됐기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노력과도 궤를 같이한다는 게 청와대 측 전언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투자협약식 참석 후 포스코의 스마트공장을 방문해 중소기업·대학과 함께 개발한 AI(인공지능) 기반 최첨단 고로를 시찰했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포스코 스마트공장은 세계경제포럼이 작년 7월 선정한 등대공장으로도 정평이 났다. 등대공장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도입해 제조혁신을 이룩한 공장을 뜻한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 삼성ENG, 4.3조 알제리 정유사업 수주

스페인 테크니카스社와 공동계약

삼성엔지니어링이 알제리에서 대형 정유 플랜트를 공동수주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8일(현지시간) 알제리 최대 국영석유회사 소나트랙과 약 4조3000억원 규모의 하시메사우드 정유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번 프로젝트를 스페인 테크니카스레우니다스와 공동으로 수주했으며 총 계약금액 중 삼성엔지니어링의 계약분은 약 1조9000억원이다.

알제리 수도 알제에 위치한 소나트랙 본사에서 진행된 계약식에는 최성안 삼성엔지니어링 사장, 카멜 에딘 치키 소나트랙 사장, 후안 야도 테크니카

스레우니다스 사장 등 각사의 최고 경영진이 참석했다.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남동쪽으로 600km 떨어진 하시메사우드 지역에 건설되는 이번 플랜트는 하루 약 11만 배럴의 원유를 정제 처리하는 설비로 삼성은 EPC(설계, 구매, 시공) 전과정을 일괄타키(방식으로 52개월간 수행할 예정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번 수주로 알제리 최대 국영석유기업인 소나트랙과의 파트너십을 확실히 다지게 됐다. 소나트랙은 정유, 가스 등 에너지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분야에도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이어서 향후 연계수주도 기대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카피캣’ 中, 이번엔 삼성 ‘세로형 TV’ 모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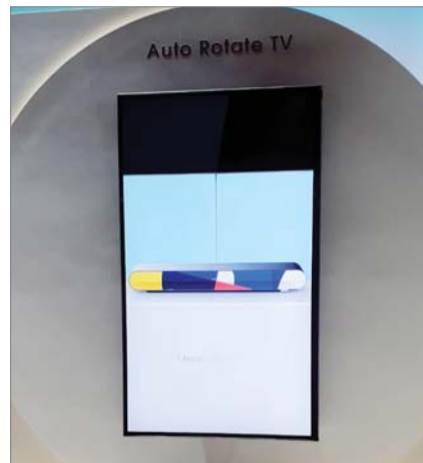
### 하이센스, TCL 등 중국 업체 4곳 삼성 더세로·더프레임 유사품 선보

‘CES 2020’에서도 중국 TV 업체의 모방 정신이 이어졌다. 하이센스, TCL, 창홍, 스카이워스 등 중국 업체 4곳이 삼성전자 제품을 모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CES 2020’에서 중국 업체의 마음을 사로잡은 삼성전자 제품은 ‘더 세로’인 것으로 보인다. 많은 중국 업체가 세로형 TV를 선보였다. 더 세로는 삼성전자가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지난해 5월 국내에 출시한 TV 제품으로 44형의 QLED 디스플레이를 가로·세로로 전환할 수 있는 TV다.

가로형으로만 보던 TV의 고정관념을 깬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화면 방향과 일치해 모바일 경험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인기를 증명하듯 전시장에 있는 더 세로에는 CES 전시 기간 내내 많은 관람객이 몰렸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내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더 세로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

CES에 참가할 수 많은 TV 제조 업체의 부스를 돌며 다양한 TV를 살펴봤



하이센스가 전시 중인 ‘오토 로테이트 TV’ (55V5F). /구서윤 기자

다. 그 중 하이센스, TCL, 창홍, 스카이워스가 세로형 TV를 선보였다. 이들 업체의 공통점은 모두 중국 업체라는 것이다. 더 세로가 좋은 반응을 얻자마자 중국 업체들도 뒤따라 유사한 제품의 출시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이다. LG전자도 출시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세로형 TV가 하나의 트렌드로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하이센스 부스에 들어가자 가로 형태의 TV가 회전해 세로 형태로 바뀌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삼성의 더 세로의 특징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하이센스의 ‘오토 로테이트 TV’를 본 관람객들은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제품은 4K 제품으로 55형이다.

창홍도 같은 형태의 TV ‘치크 스피ن(CHIQ Spin)’을 선보였다. 방향 전환을 통해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걸 나타낸다. 55형과 65형으로 나오며 4K 제품이다.

TCL은 두가지 형태의 세로형 TV를 전시했다. 하나는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세로형 TV이고, 다른 하나는 액자형의 세로형 TV다. 그중 ‘프레임 TV’는 삼성전자의 ‘더 프레임’을 연상케 했다. 더 프레임은 미술 작품을 화면에 띄워 작품처럼 활용 가능한 TV다. 현재 1000여 점의 그림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TCL이 선보인 프레임 TV는 제품 특징부터 여러 개의 그림을 보여주듯 전시한 모습까지 삼성과 모두 같았다. 이름에도 ‘프레임’이 똑같이 들어갔다.

스카이워스도 세로형 TV와 프레임 TV를 전시하고 있었다. “삼성전자에도 똑같은 제품이 있는데 알고 있나?”는 물음에는 답을 회피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애플워치가 나와도 2시간 만에 똑같이 만들어낸다”며 “기술력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법과 질서를 무시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구서윤 기자 yuni2514@

CES 2020  
관련기사 3~5, L1, L7면



CES 전시관 방문한 성윤모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Tech East LVCC에서 미래컴퍼니, 두산 모빌리티, 한글과컴퓨터, 서울반도체 등 국내기업과 브레인코, 마크포지드 등 해외기업의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 김지형 위원장 내정자 “JY 만나 독립성 약속”

### 삼성 준법감시팀 내달 공식 출범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 설립이 공식화됐다. 다음달부터 주요 계열사 7개에서 운영을 시작해 전 계열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지와 자율성 등에 우려가 크지만, 이재용 부회장 등 최고 경영자들도 보장을 약속했다고 알려졌다.

준법감시위원회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사진)은 9일 서울 서대문 법무법인 지평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장을 맡게 된 경위를 우선 설명한 뒤, 위원회 구성과 원칙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다음달 공식으로 출범을 계획 중이다. 김 전 대법관은 당초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제안을 거절했었다고 말했다.

다. 당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형사 재판을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면피용이 아닌지, 위원회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고민이 커져왔다.

그럼에도 결국 제안을 받아들인 이

유는 삼성이 먼저 스스로 변화의 문을 열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사회가 삼성 최고 경영진을 향한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삼성이 먼저 벽문을 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변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도.

김 전 대법관은 만일을 위해 수락에 앞서 위원회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적으로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고도 덧붙였다. 여러번 다짐을 받았으며, 이재용 부회장도 만나서 이를 확약 받았다고 전했다.

(2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